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세션 1, 요한 신학 개요

© 2024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요한 신학 개요입니다.

요한 신학, 특히 요한 복음과 그의 서신에 대한 신학에 대한 우리의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그의 복음과 편지와 요한계시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신학, 또는 형용사 요한 신학이 이 과정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성경 신학의 하위 집합입니다. 아마도 신학 백과사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해 신학은 특히 원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통해
추적하기 위해 주해 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경 스토리라인을 따릅니다
. 성경 신학의 하위 집합, 여전히 구분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성경에 있는
다양한 성경 코퍼스, 즉 코퍼스의 복수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울 신학, 바울 신학 또는 누가-사도행전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한 저자와 그의 저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루카 신학에
대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해석적 신학이라기보다는 성경 신학이며,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부터
교리를 추적하는 성경 신학의 광활한 큰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체계적 신학으로 이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표현이며, 또한 해석적 신학, 성경 신학, 체계적 신학이 직선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과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연구인 역사 신학이 각도에서 들어와서 바로 이 지점에서 체계적 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신학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만찬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자료, 주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일한 다음 주의 만찬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만찬의 제정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만찬의 기념, 심지어 이것조차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20장에서 빵을 떼는 것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종종 무시되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에 대한 논의, 16~17장쯤, 그리고 물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만찬 제정에 대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중요합니다. 해석, 그리고 예를 들어 유월절을 통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찬 축복의 세 번째 잔을 주의 만찬의 잔으로 바꾸셨고,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 기념주의의 만찬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개념의 광범위한 성경적 범위가 아니라 더 지역화된 의미에서 성경 신학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요한 복음의 가르침과 요한의 서신을 조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르 때문에 요한 계시록과 그 가르침은 다른 시간, 다른 과정, 다른 발표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요한 신학 과정 개요.

우리는 요한의 스타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은 그의 사상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그것은 저에게 삼부작으로 보입니다. 즉, 1장, 1~18장에

서문이 있고, 21장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119장과 20장 말 사이에 요한 복음의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것은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징의 책 2장부터 12장.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 서문, 표징의 책, 영광의 책, 에필로그.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의 복음의 주요 목적이 전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책은 전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전도에 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19장에 있고, 그의 부활은 20장과 21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작별 담화와 마지막 기도는 주로 전도의 목적이 아니므로, 저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변증학의 세 번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 고려할 것입니다.

넷째, 나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진술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나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일곱 개의 '나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징조의 책 6장부터 11장까지, 요한 복음에만 모여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에요. 그냥 잘못 말했을 뿐입니다.

표징의 책에는 거기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영광의 책에는 두 가지 더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6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의 책에 나오는 일곱 클러스터 중 다섯 개. 영광의 책에 두 개가 나온다. 일곱 가지 다른 '나는'이라는 말은 있지만 일곱 가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

세 가지 다른 의미,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일곱 가지 징조의 의미를 유익하게 요약합니다. 그는 일곱 가지 징조의 세 가지 의미를 하나의 징조, 즉 14.6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미리 보기 위해, 나는 길이요, 즉 그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나 문입니다. 그는 길이며, 그리스어로 길 또는 도로, 맥락상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가는 길, 거기에는 많은 방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며, 이는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나는 진실입니다. 이미 서론의 첫 번째 장에서, 많은 주제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창조물에서 신을 계시하는 자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주로 요한은 그가 구원에서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보여주고, 그가 "나는 진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며, 그가 말했듯이, 그리고 그때까지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침으로써 보여줍니다. 나는 길이요, 구세주입니다.

나는 진실이고,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즉, 그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아니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을 주는 자, 즉 그는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베푸신다. 이것이 대부분의 I am 말과 대부분의 표징의 의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일곱 가지 I am 말의 세 가지 의미를 요약하신다.

예수는 길이요, 구세주요, 그는 진리요,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며, 예수의 성품, 말씀, 행적에서 이처럼 계시된 적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표적들. 우리가 표적들을 차트로 그린다면, 요한복음의 장들에서 차트로 그린다면, 우리는 일곱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일곱 가지 표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세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대해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귀족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 세지 않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요한 연구에서는 관례입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 세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표징의 책에서 일곱 개의 표징을 맞히게 되는데, 여기서 표징의 책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표징은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곱 가지 중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9장에서 눈먼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말했듯이, 눈먼 사람을 고친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신에게서 온 사람이야, 멍청아들 아 . 웃기다. 교육받지 못한 눈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교육받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성경적 종교의 ABC를 가르치고 있다.

어쨌든, 예수는 더 큰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장에서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표적이 없습니다. 영광의 책은 20장까지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까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징조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다. 2장에서 예수가 예언한 대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파괴하라.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다.

표징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글은 심지어 존이 자신의 편집 코멘트 중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씀과 성경을 놀랍게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과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것은 좋은 징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징조는 징조책에 모여 있습니다. 일곱 번째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며, 그것은 징조의 본질이거나 모든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징조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징조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징조는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말한 말로, 20장에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 진술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일곱 가지, 아니면 여덟 가지, 아니면 아홉 가지, 확실히 여덟 가지, 적어도 아홉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믿음, 즉 그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17장에 나오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으로는 이미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서 지적하듯이, 그의 마음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

17:24. 아버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영광을 보려고, 세상 창조 전에 당신이 제게 주신 영광을 보려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말씀. 그런데 시간은 요한복음의 이러한 구별 중 일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구별 중 일부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널리 퍼져 있고 네 번째 복음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독특한 시간적 말씀이 되며,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와 같은 말씀을 하거나, 유대인들이 그에게 손을 대고 싶어했지만,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섭리적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12장 말미, 13장 초에 그의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일을 하도록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의 사역은 그가 입에서 내뿜는 말과 그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사역은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적 말씀은 그보다 더 큰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처럼, 시간이 오고, 시간이 오고, 시간과 시간은 어느 정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올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 28~29절. 그것은 예언입니다. 물론, 주 예수의 음성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5:28과 29입니다.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에 역사적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축제와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우리가 누군가, 즉 탐구자에게 요한 복음을 읽으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실존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당신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에게 바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그 특징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죄인, 독자 사이에 실존적인 직접적인 소통이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장에서 예수를 체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찰과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웃는다. 눈먼 사람이 그들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전에 눈먼 사람이다. 전혀 학자도 아닌 성전 경찰은 지도자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에 눈이 멀고 귀머거리이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큰 반응과 다른 대부분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많은 주제가 서론에 소개됩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은 이미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입니다.

중요한가요? 오, 맞아요. 요한복음의 서론부터 12장 끝까지 표적의 책은 대체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12:37.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맞는 구절이에요, 12:37. 그리고 물론, 요약하자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맞이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30, 31에서 도마가 의인화한 것처럼, 그는 보고 믿었지만 실제로 만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믿는 것에 대해 축복을 선언하셨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축복을 선언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목적 진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표적이 기록되었다고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서문에서 이미 설명한 예수에 대한 반응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 측면에서 이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12:37은 표적의 책에서 예수의 메시지와 기적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며, 그것은 엄지척입니다. 20, 30, 31은 13장 1절에서 11명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려가 세상으로 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청중은 세상, 특히 유대인 세상입니다. 영광의 책의 청중은 제자들, 즉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서론에서 소개되는데, 특히 세례자 요한이 그렇다. 그가 식별되는 방식이 정확히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빛을 믿을 수 있도록 빛을 증거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은 요한 복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위대한 로마 가톨릭 복음 학자 레이먼드 브라운과 그의 앵커 성경 주석은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은 실제 시간, 예수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빌라도와 헤롯 앞에 재판을 받는 실제 본문을 최소화합니다

그는 그것을 포함시켰는데, 때로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아이러니한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포함시켰지만, 잘라내고, 줄였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가 평생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신은 또 다른 판결을 내리고, 아마 일곱 번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 숫자가 반복되는 건가요? 네. 아마 일곱 번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범주를 가짐으로써 그걸 알 수 있으니, 아마 오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증인들이, 적어도 일곱 명.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의 두 주요 구절,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큰 것은 5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성부, 예수의 기적, 세례자 요한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평생 재판을 받았습니니다. 네, 끝에는 재판이 있고, 요한은 그것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는 내내 재판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12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천둥이 쳤다고 생각한다, 또는 천사가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존은 아이러니하고 심지어 비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이 죄를 주로 제시하는 방식은 불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그의 아들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관복음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반영합니다. 8장에는 예수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 있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입니다.

요한은 예수에 대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며 그 이상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의 구원 사역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속죄 교리인가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구원 사역입니다.

네, 첫 번째 언급은 1장에 있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대제사장 기도에서 전개된 희생 제사적 제사장 주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제자들과 다른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의 구원 사역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 큰 수확을 거두는 밀알로서의 그가 포함되며, 그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마귀와 세상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구원 사역의 일부이며, 그의 부활은 구원합니다. 사실, 10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생명을 내려놓고, 다시 취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옵니다. 주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일찍 나타나지만, 우리는 종종 네 번째 복음서에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로 여기서 하나님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학은 요한 복음 전체와 우리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아는 바에 근거하여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가정되거나 투사된 것,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주로 작별 담화에서 14, 15, 16절에서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으로서의 영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성령의 미래 사역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성령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분신이며, 예수님의 많은 사역,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생명을 주는 사역은 진리의 영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는 또한 생명의 영입니다.

그 태그는 Sinclair Ferguson의 성령에 대한 놀라운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책은 Varsity Press에서 출간된 The Holy Spirit, Condors of Christian Theology라는 제목입니다. John의 신학에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는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만이 그의 복음서 16장과 18장에서 그 복음서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요한은 교회라는 단어 없이

교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 개념의 오류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 단어나 단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나 교회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냥 틀렸습니다.

요한은 결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포도나무에 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살펴볼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주제는 흔히 다루어지지 않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은 도처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전념하는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원, 기초, 구원의 샘, 말하자면, 선택 ,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심 . 여기서도 우리는 개념적 오류라는 단어를 피합니다.

요한은 선거, 예정, 예정이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세 가지 그림을 통해 선거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줍니다 . 아들은 15장에서 선거의 저자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전에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빼먹었어요. 선거의 세 번째 그림에서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네 번이나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 16, 19장에서만 선거의 저자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전 또는 선행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전, 아마도 26절쯤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적을 행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많이 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잠깐만요.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내 양이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것은 요한 복음에서 더 흔합니다. 단어 자체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불신은 사람을 영생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 그리고 나는 그들을 염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오직 신만이 아는 선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택함받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택함의 그림입니다. 내 양들은 그런 식으로 지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 전에는 선행 또는 사전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DA 카슨이 그의 큰 책임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적 관점과 긴장에서 보여주듯이, 네 번째 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의 더 인기 있는 책에서 그는 또한 How Long, O Lord, 고통과 악에 대한 성경적 진술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올바른 부제가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영생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만약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 세 복음서에서 올려 퍼지는 단어라면, 생명, 영생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어휘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합니다. 영생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 말씀, 요한 복음에 34~35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총 20회도 안 되지만, 요한 복음에는 항상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신성한 주권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있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3, 이는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와 아들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5장,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몇 구절 뒤에 영원한 생명의 아직 아닌 차원이 나옵니다. 인자의 음성,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올 것이요, 선행을 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구원은 또한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적어도 두 번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바울의 언어를 애정 어린 방식으로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12장, 예수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끈다고 말한다. 이 맥락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도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했다.

그는 그들을 멀리하는 듯하지만, 그는 그들을 이 위대한 말씀에 포함시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가르쳐지는데, 예수님은 여러 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오는 사람들, 즉 나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를 들어 6장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영생으로의 부활로 절정에 이릅니다. 구원에는 또한 하나님의 보존 사역, 그의 백성을 지키는 사역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6장, 내가 그분이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양을 지키시느니라. 그는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느니라.

사실, 10장은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조화를 이루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요한복음 10:26,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더 크시다.

미안합니다. 글을 망칠 때, 글을 읽어야 합니다. 원칙 4번입니다.

처음 세 가지 원칙은 뭐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내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폭력의 그림이며,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떼어내는 것, 혹은 양치기의 강한 팔에서 양들을 떼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력한 용어인 '잡아채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덜 강력한 용어들을 포함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를 표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양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됩니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종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꺼이 아버지에게 종속된다는 점에서 그는 기능적으로 아버지보다 작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문맥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것은 철학적 존재론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보존하고, 나와 아버지는 양을 보존하는 우리의 신성한 일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보존은 구원의 한 측면으로, 전통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나는 바울에서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를 즉시 떠올리지 못합니다. 나는 네 번째 복음서에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체계신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므로, 그분은 하나 안에 셋이시며, 그분의 모든 일은 나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네 번째 복음서에 이미 있고 아직 없는 본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게 마지막 일의 주요 특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 말씀과 그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봅니다. 12절 끝.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것은 이미 일어났지만, 죽은 자의 부활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29절.

그것은 아직 미래입니다. 요한의 영원한 삶은 주로 이미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현재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미래입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입니다.

아,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주로 영생은 이제 네 번째 복음서에 있습니다. 여기 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여기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대조된다. 이는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미워하는 것은, 소위 동양적 비교, 신에 대한 사랑,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증오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주석은 그것이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적 언급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영적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시자이신 만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미래에 인자의 음성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신학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의 스타일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요한 신학 개요입니다.